12면에서 계속

는 삼사三司에 유숙케 하고 도적 안녹산에게서 관작을 받은 자들을 열지어 세워 견제에게 절하게 하여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다. 그리고 견제를 비서랑秘書郞으로 삼았다.

견제는 당나라의 정주定州 무극無極 사람으로 자는 맹성孟成이고 벼슬은 비서랑을 거쳐 저적랑著作郞 겸 시어사侍御史를 지냈다. 봉도封刀는 제왕이 주살의 전권을 주어 내려주는 칼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조식호아유이심早識胡兒有異心 : 일찍 오랑캐〔안녹산이 본디 호인胡人〕에게 다른 마음이 있음 알고
고사서기반산림固辭書記返山林 : 굳게 서기직 사임하고 산림으로 돌아왔네
후래불파봉도소後來不 封刀召 : 후일에 봉도로 불러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명촉기선지려심明燭幾先智慮深 : 밝게 기미를 먼저 살핀 지려가 깊구나
지존당일염충순至尊當日念忠純 : 지존이 당일에 그 충순을 생각하여
포상제관예우신褒賞除官禮遇新 : 포상으로 관직을 제수하는 예우도 새로워
이험독능전절의夷險獨能全節義 : 안위에 홀로 능하니 온전한 절개 의로운데
정전열배시하인庭前列拜是何人 : 뜰 아래 열지어 절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제목 견제대인은 견제가 칼날을 기다려 맞는다는 뜻이다.

159. 수실탈홀秀實奪笏

주체朱 가 궁궐에 들어오고부터 단수실段秀實은 오래 병권兵權을 잃고 있었는데 기병을 보내 그를 부르니 단수실이 와서 주체를 보고 말하기를 ‘ 군사에게 내려 먹이는 것이 풍부하지 못하니 이는 유사有司의 허물인데 천자天子께서 어찌 이를 아시겠소? 마땅히 장사將士에게 이를 효유曉諭하시게 해야 하니 거둥하시도록 맞이하십시다 ’ 하였다. 그러나 주체가 이를 기꺼워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 이는 제 비리를 황제께 드러내지 않으려함이었다.

이에 단수실이 장리將吏들과 모의하여 주체를 주살誅殺하고자 하였는데 일을 결행하기 전에 주체가 한민韓旻을 보내 병력으로 황제의 승여乘輿를 맞이하도록 하니 이는 실제로 봉천奉天에 피난해 있는 천자를 습격하려는 것이었다. 단수실이 기영악岐靈岳에게 말하기를 ‘ 일이 급하게 되었다 ’ 하고 기영악으로 하여금 거짓 요영언姚令言의 부신符信을 만들어 한민이 이를 받고 또한 돌아가게 하도록 하였다. 한민이 회군해 돌아가자 단수실은 한가지로 모의하던 자들과 말하기를 ‘ 한민이 돌아갔으니 우리는 비할 바 없이 좋게 되었다. 내가 마땅히 주체를 쳐 죽이되 이기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 하고 유해빈劉海濱 등으로 하여금 비밀히 결사대를 만들어 대응케 하였다.

한민이 그대로 돌아오자 주체와 요영언은 크게 놀랐고 기영악은 거짓 부신을 만든 죄로 사형되었다. 주체는 이충신李忠臣과 원휴源休 및 단수실 등과 의논하여 스스로 황제를 일컬으려 하였다. 그러자 단수실이 발연勃然히 일어나 원휴의 상아홀象牙笏을 빼앗고 주체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꾸짖기를 ‘ 미친 도적아, 내가 너를 베지 못하는 것이 한이거늘 어찌 너를 좇아 모반하겠느냐 ’ 하면서 홀로 주체의 가운데 이마를 치니 피가 흘러 땅을 적시는데 이충신이 급히 도와 주체가 가까스로 탈주하였다. 이에 단수실이 주체의 무리에게 ‘ 내가 너희와 한가지로 모반하지 않는데 어째서 나를 죽이지 않느냐 ’ 하니 무리가 다투어 달려들어 그를 때려 죽였다.

주체는 당의 창평昌平 사람으로 노룡盧龍이라는 사람의 부장部將으로 있다가 절도사節度使 주희채朱希彩가 살해되자 절도사로 추대되어 진鎭을 다스렸고 덕종德宗 때 요영언姚令言이 변란을 일으켜 처자가 봉천奉天으로 피난하자 난병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어 국호를 대진大秦, 연호를 응원應元이라 했다가 뒤에 국호를 한漢, 연호를 천황天皇이라 고쳤다. 그뒤 장안長安을 수복한 이성李晟에게 쫓겨 달아나다 피살하였다.

단수실은 당의 농주 州 견양)陽 사람으로 자는 성공成功이며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였고 고선지高仙芝와 봉상청奉常淸을 따라 전공을 세우고 경원涇原의 절도사를 지내며 토번吐蕃을 제압하였다. 반란을 일으킨 주체를 살해하려다 죽었고 뒤에 충렬忠烈의 시호를 받았다.

봉천奉天은 당나라 때 설치한 현縣의 이름으로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건현乾縣에 있었다. 요영언은 당의 하중河中 사람인데 경원涇原 절도사로 있으면서 건중建中 말년에 주체를 옹립하여 난을 일으켰다가 자못 힘을 다해 싸웠으나 주체가 패하자 함께 참수되었다.

이충신은 당의 계☯ 사람으로 본성명은 동진董秦이며 숙종肅宗이 그 전공을 가상하여 사성명하였고 관직이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이르러 서평군왕西平郡王에 봉해졌는데 그 비장裨將이었다가 뒤에 주체와 몰래 연계하여 모반한 이희열李希烈의 협박으로 주체를 좇아 반역하여 사공司空의 위직僞職을 받았다가 뒤에 복주되었다.

원휴는 당의 임장臨 사람으로 경조소윤京兆少尹에 이르러 회흘回紇에 사신갔다 왔는데 재상 노기盧杞가 그 구변으로 결은結恩되는 것을 시기하여 광록경光祿卿으로 체직시켰다. 이에 원망하다가 주체를 권하여 황제를 참칭케 하였다. 주체는 그를 재상으로 삼아 탁지度支를 판判하게 하니 안팎의 자모咨謀가 한가지로 그의 병획秉 으로 되었으나 주체가 패사하자 봉상鳳翔이란 곳으로 달아났다가 그 부곡部曲에서 피살했다.

제목 수실탈홀은 단수실이 홀을 탈취했다는 뜻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요부사작문하연姚符詐作問何緣 : 요영언의 거짓 부신이 무슨 사연인가
위알민군습봉천爲저旻軍襲奉天 : 한민의 군사봉천 습격을막고자 함이었네
한위우간공불세 衛于艱功不細 : 위태로움 막아 지킨 공이 작지가 않으니
방명천재숙거선芳名千載孰居先 : 천년을 가는 아름다운 이름 뉘 그보다 앞서리
당악숭간식유도黨惡崇姦寔有徒 : 악한 무리 간사함을 숭상해 떼를 지으니
발연추홀편망구勃然抽笏便忘軀 : 발연히 홀을 뽑으며 문득 제몸을 잊는데
형해종피인쟁살形骸縱被人爭殺 : 형해는 비록 무리에게 타살되었지만
순국충성경불투徇國忠誠竟不 : 나라에 바친 충성은 끝내 달라지지 않네.

160. 연분쾌사演芬快死

석연분石演芬이 이회광李懷光을 섬겨 도장都將에 이르렀는데 더욱 친신親信이 두터워져 이회광이 석연분을 가자假子, 즉 의자義子를 삼았다. 이회광의 군대가 삼교三橋에 진영을 차렸는데 장차 주체朱 의 반군과 연화連和하려 하였다. 이에 석연분은 문객 곡성의❾成義를 시켜 천자의 행재소行在所에 가 이회광이 반적을 깨트릴 의사가 없으니 그 총통摠統의 직을 파할 것을 청하게 하였다. 이에 곡성의가 달려가 이회광의 아들 이유李琟에게 이를 알렸다. 이에 이회광이 석연분을 불러 꾸짖었다. ‘ 네가 나의 자식이 되어 가지고 어찌하여 우리집을 파멸케 하려 하느냐? 오늘 네가 나를 배반하였으니 곧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 하니 석연분이 대답하였다. ‘ 천자께서 공을 팔다리로 삼았고 공은 나를 복심腹心으로 삼았는데 공이 천자를 배반하거늘 내가 어찌 공을 배반할 수 없으리오. 나는 또한 호인胡人으로서 다른 마음이 없어 오직 한 사람을 섬길 줄 아니 나를 도적이라 부르지 마시오. 죽는 것은 내 고유의 분수요. ’

이회광이 사졸을 시켜 그 육신을 저며서 먹으라 하였다. 그러자 모두 말하기를 ‘ 이는 열사烈士이니 쾌히 죽게 하는 게 옳다 ’ 하고 칼로 그 목을 잘랐다. 뒤에 이 소식을 들은 당의 덕종德宗은 석연분에게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추증하고 그 집에 3백만 전錢을 하사하였으며 곡성의는 삭방朔方에서 참수케 하였다.

석연분은 당대의 서역西域 사람으로 이회광을 섬겨 그 수양아들까지 되었으나 이회광이 주체와 화친하려 하자 이를 황제에게 알리려다가 죽었다. 이회광은 당대의 발해渤海 출신 말갈인 靺鞨人이고 본래 성은 여茹씨인데 그 아버지 상常이 전공을 세워 당실唐室과 같은 이李씨를 사성받았다. 무예가 뛰어나고 용맹하여 전공으로 도우후都虞侯가 되고 봉천奉天에서 포위된 황제를 구한 공으로 부원수副元帥、중서령中書令에 올랐으나 주체와 연계하여 반란하려다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제목 연분쾌사는 석연분이 병사들에게 의로운 여김을 받아 욕되지 않게 죽었다는 뜻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장군송통천병기將軍摠統擅兵機 : 장군이 총통으로서 군병의 기틀을 오로지하며
여적연화국사비與賊連和國事非 : 역적과 연화하니 나랏일 기우는데
유유호인무이지唯有胡人無異志 : 오직 두 마음이 없는 호인이 있어
기진행재반상위冀陳行在反相違 : 행제소에 알리려다 도리어 배반당했네.
공부군왕아부공公負君王我負公 : 공이 임금을 배반하니 나도 공을 배반하고
유지사상갈고충惟知事上竭孤忠 : 오로지 임금을 섬겨 외로운 충성 다할 뿐인데
경조단경능전절竟遭斷頸能全節 : 필경은 목이 잘려 절개를 온전히 하니
천재쟁흠열사풍千載爭欽烈士風 : 천년토록 다투어 열사의 풍모 흠모하네.

161. 손규속판孫揆束板

당의 소종昭宗이 경조윤京兆尹 손규孫揆를 하동행영河東行營의 초토부사招討副使를 삼아 군사 2천을 거느리고 노주潞州로 가게 하였다. 이때 이극용李克用의 장수 이존효李存孝가 탐문하고 기병 3백을 장자長子의 서곡西谷에 매복하였다가 손규를 사로잡아서는 이극용에게 바쳤다.

이극용이 손규를 회유하여 자기편의 하동부사河東副使를 삼으려 하니 손규가 ‘ 나는 천자의 대신이니 군사로 패하여 죽는 것은 분수이다. 어찌 다시 진사鎭使를 섬기겠느냐 ’ 하니 이극용이 노하여 톱으로 잘라 죽이라 명했다. 그런데 톱니가 잘 들지 않자 손규가 꾸짖기를 ‘ 개같은 죽일놈아, 사람을 톱질하려면 마땅히 널판을 대 묶어야 하는데 네놈이 어찌 알겠느냐 ’ 하니 널판을 갖다 아래위로 대고 그 사이에 끼워 넣고 묶어 톱질을 했는데 손규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꾸짖는 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손규는 당나라 사람으로 자가 성규聖圭이고 진사進士로 급제하여 경조윤에 이르렀는데 소종이 이극용을 칠 때 소의군절도사昭義軍節度使로서 출전중 복병에게 잡혀 죽었다. 이극용은 당말 서돌궐西突厥의 사타부沙陀部 사람으로 용맹이 뛰어나 이아아李鴉兒, 애꾸눈이어서 독안룡獨眼龍이라는 별호를 가졌는데 운주雲州에 웅거하여 유후留後라 자칭하였다. 황소黃巢를 격파하여 하동절도사河東節度使에 임명되고 진왕晋王에 봉해졌는데 당이 망한 뒤에도 당나라 정삭正朔을 사용해 의리를 지켰다. 뒤에 아들 이존욱李存勗이 후당後唐을 세워 황제가 되자 무武의 추시追諡를 받고 태조太祖의 묘호廟號를 받았다. 이존효는 대주代州의 비호飛狐 사람으로 본성명은 안경사安敬思인데 후당後唐의 태조가 되는 이극용에게서 성명을 하사받고 그 양자가 되었다. 기장騎將으로서 전공을 많이 세워 분주자사汾州刺史、형주유후邢州留後 등을 지냈으나 같은 이극용의 양자 이존신李存信의 모함으로 주살되었다.

제목 손규속판은 손규가 스스로 널판에 묶였다는 뜻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강번발호거강동强藩跋扈據江東 : 강성한 변방이 발호하여 강동 땅에 웅거하니
독유손공서진충獨有孫公誓盡忠 : 홀로 손공이 충성을 다하겠다 하는데
기의출사취로일豈意出師趣潞日 : 어찌 군사를 발하여 노주로 가는 날에
견금서곡복병중見擒西谷伏兵中 : 서곡에서 복병에 사로잡힐 줄 알았으라
왕신병패사당연王臣兵敗死當然 : 임금의 신하로 패전하면 죽는 게 당연하니
기긍생항진사전豈肯生降鎭使前 : 어찌 즐겨 살아서 절도사 앞에 항복하리오
만매구노영속판慢罵狗奴令束板 : 개놈이라 오연히 꾸짖어 널판으로 묶게 하니
추상의열조청편秋霜義烈照靑篇 : 가을서리같은 의열이 청사에 비치네.